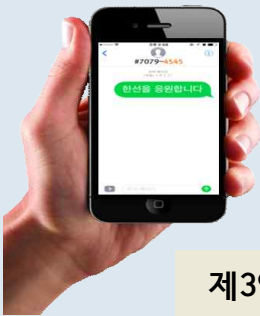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복지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발제자]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일 시] 2022년 5월 19(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 제39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정립이 잘못되어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본질적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미래 문제에 당면해있다.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미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혁신의 가속화, 기존의 사회정책과 MZ세대간의 불합치가 그 예이다. 청년층은 고용안정과 자녀 교육, 주거안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출산을 기피한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고있는데 정책과 현세대간의 불합치로 인해 저출산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책이 세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 Generation Zers(이하 Z세대)은 1995년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무제한으로 연결되어있고 정보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게된 세대다. 인터넷이 없었던 M세대의 어린시절과는 전혀 다른세대다. Z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가이드 없이 스스로 자란 세대이며 다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Z세대의 특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 되었고 이들이 진정한 디지털 세대이다. 이제는 이런 Z세대를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 ◆ 코로나 이후 현재 우리 사회

- ◆ 우리는 다양한 미래 문제에 당면해있다.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미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혁신의 가속화, 기존의 사회정책과 MZ세대간의 불합치가 그 예이다. 청년층은 고용안정과 자녀 교육, 주거안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출산을 기피한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고있는데 정책과 현세대간의 불합치로 인해 저출산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책이 세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청년대책(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의 근본적 차이는 청년대책은 생애 전체에 관련된 사회적 정책이고 고령화 정책은 은퇴 이후에 대한 것이다. 고령화정책은 의미가 없다. 생애 전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Liberalism은 우파의 기본 이념이다.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없으면 제도는 썩은제도가 된다. 항상 Liberalism 관점에서 보아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다. Liberalism의 관점은 창의력이다. 이 제도적 창의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진화한다. ‘공평’은 획일화 시킨다는 것이다. 창의력과 공평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있다. 우리는 창의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제도가 계속 후진하고, 수혜자가 계속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
- ◆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포퓰리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보호주의적 neo-statism이 출현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정부의 간섭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주권-보호주의-컨트롤이 더 강해질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힘을 잃을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본민주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회복해야한다. 경쟁과 혁신을 계속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 ◆ 다양한 사회 정책 플랫폼

- ◆ 복지제도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현재 복지제

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사실 복지제도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후진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찾고 수정하여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 Welfare Policy(공공부조)는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이 되었고 최근들어 소득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정책이다. 그러나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이 다양화 되었고 사각지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잘살아도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Welfare Policy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 ◆ Social Security Net(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까지 다 도입을 하고있다고 본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되었다. 구조적 재정적자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민영보험과의 보완 및 경쟁관계 형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 위기가 닥쳤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의 세대는 사다리가 상실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극화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 단절이 일어난다. 고용시장, 소비, 교육, 주택 계다가 자살률까지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제적인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 Social Policy의 목표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이다.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회를 보장하며 주거안정, 범죄억제, 노동시장에 대한 귀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Positive Sum적인 사회적 조화를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책플랫폼은 과정에서 성과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과정과 이념을 중시하는 포퓰리즘과 돌려막기로 정부예산이 폭증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퍼주기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근로자를 과잉보호하여 고용이 감소했다.

### ◆ 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한 이유

- ◆ MZ세대는 같이 볼 문제가 아니다. M세대와 Z세대는 아예 다른 세대다. 아무리 좋은 사회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대상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우리에게 맞

는 사회정책이었고 M세대에 맞는 사회정책이 있다.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들은 전혀 다른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며, 그것이 올바른 사회정책의 방향이다.

- ◆ Generation Zers(이하 Z세대)은 1995년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무제한으로 연결되어있고 정보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게된 세대다. 인터넷이 없었던 M세대의 어린시절과는 전혀 다른세대다. Z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가이드 없이 스스로 자란 세대이며 다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라 볼 수 있다. 문제는 Z세대의 특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 되었고 이들이 진정한 디지털 세대이다. 이제는 이런 Z세대를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 ◆ Z세대는 self-driver다. 요즘 세대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굉장히 이타적이다. Z세대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과 커뮤니티를 일치시키고 나의 문제는 커뮤니티의 문제, 커뮤니티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커뮤니티를 이루는 Z세대의 큰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잘살아야한다고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 Z세대는 Authenticity,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매우 중요시한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단 한번의 거짓말을 하였고 나머지의 사실은 모두 진실이었다라고 그 사람은 앞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Z세대는 집단의 속성이 강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는데에 협조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특징은 WWW, 인터넷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세계의 모두가 연결되어 세계적인 협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 ◆ Z세대는 독주하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리더십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잠시적이고, 번갈아가면서 가져도 된다. 당사자들이 이해한다면 서로 이해하는 리더십을 가졌다면 Z세대는 그 리더십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 그러나 Z세대는 과거에 굉장히 비판적이며 신랄한 유머로 통렬한 비판을 한다. 자신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인지 그들의 관심사는 부의 축적이 아니다. 기후변화, 인종차별, 불공정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저 돈만이 Z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 Z세대는 자유, 전문성, 진실성, 형평성, 포용성 등에 대해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믿는 바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건강이며 공정사회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Z세대의 가치관을 사회정책에 내재화 해야한다. 이들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의 사회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